

# 21세기 조경환경 변화와 조경수 업계의 대응



오 구 균  
호남대 도시·조경학부 교수

## 1. 변화하는 조경환경

산업화,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은 환경오염문제를 야기시켰고 이의 해결을 위한 노력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1세기는 지구 및 국토환경악화에 따라 환경윤리가 지배하는 사회·경제구조로의 개편이 예상되며, 지구 및 국토 환경 보전과 도시 환경문제 해결의 대안으로서 환경녹지분야의 비중은 갈수록 커지리라 예상된다.

인류 문명의 위기와 함께 지속적인 인류의 번영과 생존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는 한편, 환경, 생태계, 자원복원 및 재

현 등 환경·생태분야의 사업이 증가하면서 조경분야는 새로운 업역의 창출기회와 활성화의 기회를 맞이하리라고 예상된다. 예를들면, 도시공원이 도시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환경교육기능을 수행한다든가 도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하여 도시내 소하천의 재생, 복원을 통한 도시안 녹지축 및 생물이동통로 조성 사업추진, 환경·생태공원 조성 및 자연환경관찰시설 확충등이다.

조경업이 건설업의 업역으로 자리매김이 되면서 건설교통부는 건설업의 시장개방에 따른 분쟁 등 문제점을 예방하고, 21세기 건설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1999년에 조경설계기준을 제정, 공포하였다. 신 조경설계기준은 조경환경 변화에 발 맞추어 재료, 토양, 환경생태조사나 모니터링, 생태계 복원, 포트묘 식재 등 많은 항목을 추가하거나 세분화하여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조경업역의 확대와 전문화, 과학화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된다.

한편, 정부가 재배품종 국제

협약 가입을 추진함으로써 외국에서 품종 개발된 식물의 지적 재산을 보호할 예정이고, 아울러 국내에서도 재배품종의 개발이 활성화되리라 예상되며, 이는 조경식물 소재개발 및 시공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경수 생산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면, 2000년 이후 조경설계에서 조경식물의 우리말(국명)과 함께 학명을 반드시 도면에 기재하여야 하고, 재배품종인 경우도 품종명을 가능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군락식재, 생태계 복원 등과 관련하여 자생수종과 포트묘 설계를 권장하고 있다.

## 2. 조경수 사용 실태

□생태·문화적 측면에서의 식물종 구분

기존 식생의 자연성 분석이나 자연미를 재현하는 조경설계 등에서 수목들의 자생성을 구별하는데 있어서 외국종, 외래종, 귀화종, 자생종, 향토종,

전통수종등의 개념이 혼용되고 있다. 따라서 생태·문화적 측면에서 조경수종을 구분할 때, 조경설계가나 조경수 업계에서도 관련용어의 정확한 사용이 필요하다.

외국종이란 국내종과 반대되는 용어로서 우리 나라에 자생하지 않는 종으로서 리기다소나무, 사방오리, 아까시나무등을 말한다. 외래종이란 자생종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 지방이나 장소에 자생하지 않는 종으로 인위적으로 도입되었거나, 침입하여 활착한 종으로 대상지에 자생하지 않는 종으로 인위적으로 도입되었거나, 침입하여 활착한 종으로 대상지에 자생하지 않는 국내종이나 외국종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서울 남산(도시자연)공원에 식재한 잣나무, 자작나무(이상 국내종), 무궁화, 히말라야시다(이상 외국종) 등과 자연적으로 침입, 활착한 서양등골나무 등이 서울 남산(도시자연)공원의 외래종이다.

귀화종이란 어떤 매개에 의

하여 외국의 자생지로부터 국내에 유입되어 우리 나라에 적응, 활착하여 야생화된 종이다. 자생종이란 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나타내는 종으로 그 지방에 자연적으로 활착하고 번식하는 국내종으로서 특정 장소에 국한하여 사용되는 생태학적 종 개념이다. 향토종이란 전통적으로 생활문화공간에 식재되어온 종 개념으로서 특정지방에서 즐겨 식재해 온 종이며 국내·외종을 구분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서울지방에서 즐겨 식재한 소나무, 은행나무, 회화나무, 향나무, 백송 등이나 광주지방의 소나무, 배롱나무, 왕버들 등은 각각 서울, 광주지방의 향토수종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통적으로 문화공간에 사용해 온 소나무, 회화나무, 은행나무, 향나무 등은 전통수종이라고 세분할 수 있겠다.

□조경수목명의 정확성

현재 조경계의 기술축적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며 조

경식재 및 녹화와 관련된 설계 및 시공과 재료에서 특히 부진한 편이다. 우리 나라에서 체계적 조경설계를 시작한지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식재설계나 시공, 유통시 조경수목의 학명이나 재배품종명보다는 양묘업체나 중개상들이 사용하는 수목명칭을 사용함으로써 학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명과 틀린 경우가 많고, 이는 식재 설계나 시공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게 되고 분쟁을 야기시키고 있다. 조경식재·시공시 재배품종이나 유사종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관행이나 비전문성은 조경분야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조경업의 위상과 전문화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같은 종을 이명 혹은 잘못 표기하고 있거나 없는 수종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재배품종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 조경식재용 재료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또한 동백나무, 칠쭉류, 뱃나무류, 목련류 등은 설계도면에는 1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한 종에 대하여 여러 품종이 동일 공사에 식재되고 있다.

□자생수종 공급

1999년에 광주광역시에서 시공된 10개 아파트 단지의 조경식재수종을 조사·분석한 결과 전체 110종 중 자생종이 27%, 국내 외래종이 18%, 외국종이 37.3%, 재배품종이 11.8%로 나

표1. 조경수종의 자생성 및 향토성 분류기준

구 분		기 준
국내종	자생종	대상지의 기후대에 자생하는 수종으로 1~2개체씩 희귀하게 생존하는 종은 제외
	외래종	국내에 자생하는 종중 대상지에서 자생하지 않거나 1~2개체씩만 생존하는 종
국외종		국내에 자생하지 않는 종
재배품종		꽃, 열매, 잎 등의 색깔, 크기, 모양 등 특정기관의 일부분이 원종과 다른 형질을 갖게된 종이거나 종(Species)의 분류군(Taxa)에 포함되는 종이 존재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육종, 개량되어 사용되는 유실수와 원예종

표2. 식재설계 및 시공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수종명 예

잘못된 사례	대표적인 수종
이명을 사용하고 있는 수종	곰솔(해송), 나무수국(목수국), 배롱나무(백일홍나무), 매실나무(매화나무)
두가지 이상의 명칭으로 표기되는 수종	소나무(등근소나무), 섬잣나무(오엽송, 조형섬잣나무)
조형여부를 기준으로 사용된 수종	주목(선주목, 등근주목)
잘못 표기되고 있는 수종	단풍나무(청단풍)
수종을 구별할 수 없는 수종명을 표기	백철쭉, 자산홍, 영산홍, 겹철쭉
여러종류의 품종이 있으나 하나의 보통 명으로 표기	장미, 감나무, 매실나무, 꽃사과, 꽃아그배나무, 홍자두, 실화백, 불두화, 동백나무, 애기동백나무

타났다. 자생수종 사용비율이 27%로 낮은 이유는 자생수종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자생수종 구분에 있어서 조경설계가들의 이해부족 때문으로 판단된다. 식물군락 조성이나 완충녹지 조성, 생태공원조성, 자연미 재현 등에는 다양한 자생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수목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태적, 자연적 식재설계 자체를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예를 들면, 생태계복원용으로 많이 필요한 자생수종으로 국수나무, 조록싸리, 병꽃나무, 생강나무 등 산림주연부 수종과 졸참나무, 갈참나무, 오리나무, 물오리나무, 개암나무, 사람주나무, 붉가시나무, 종가시나무, 구실잣밤나무, 후박나무 등이 거의 생산되지 않고 있다. 또한 자연미나 향토미를 재현하는데 필요한 진달래, 철쭉꽃, 침벚살나무, 노린재나무, 말오줌때, 들메나무, 해당화, 순비기나무, 다정큼나무, 굴거리나무 등도 거의 생산되지 않고 있다.

### 3. 조경수 수요 전망

#### □자생수종 수요 증가

신 조경설계기준이 잘효됨에 따라 앞으로 조경설계가들은 수종명이 불확실하거나 품종명이 혼동을 주는 수종 등의 사용을 기피하게 될 것이다. 특히 조경수 공급업체들이 재배하고 있는 수종명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과학적인 조경수 생산·유통체계가 확립될 때까지 자생수종의 사용이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 □포트묘 사용량의 증대

신 조경설계기준에서는 생태계복원식재나 군식재시 포트묘나 수고 1.5m 이하 수목식재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미 재현이나 생태계복원, 생태공원 및 자연학습시설 조성 등 사회여건 및 수요 변화에 따라 자생수종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공공녹지 조성이 증가하고 인건비가 상승함

에 따라 대묘 중심의 식재설계 및 공사가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군란식재나 생태계복원시 자생수종 수요량의 증대와 함께 포트묘로 재배한 중·대묘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공공녹지 조성시 포트묘에 의한 식재는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에 일반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포트묘 생산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4. 조경수 생산업계의 대응

21세기 조경업의 환경변화에 발 맞추어 조경수 생산 및 유통분야의 획기적 변화와 대비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조경수 생산업계가 대비하고 노력해야 할 방향은 대략 다음과 같다.

#### □자생수종 생산확대

생태계 복원, 복구 재현 또는 조성에 필요한 자생수종과 자연미, 향토미를 재현할 수 있는 자생수종이 생산되지 않거나,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생태계 복원과 관련한 수종으로는 각 기후대별 산림을 구성하는 우점종과 우세종 및 속성 수종, 산림 주연부 수종의 생산이 필요하다. 우점종으로는 갈참나무, 졸참나무, 붉가시나무 등 참나무과 수종과 소나무 등을 들 수 있고, 우세종으로는 물푸

레나무, 들메나무, 굴피나무, 벚나무류, 사랍주나무, 때죽나무, 개암나무 등을 주연부수종으로는 병꽃나무, 국수나무, 조록싸리, 나무딸기류, 조릿대 등을 들 수 있고, 속성수종으로는 오리나무, 물오리나무, 버드나무 등을 들 수 있다.

#### □포트묘 양산체계 확립

식물군락식재나 도시 및 국토환경보전을 위한 공공녹지 등 녹지양의 증가에 대비하여 최신 시설설비를 통한 포트묘의 대량생산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포트묘 생산은 평지공간이 많이 필요하고, 초기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의 영세한 조경수 업체에서 추진하기가 어려우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조경수협회에서 식물기후대와 지리적 권역을 고려하여, 회원사가 참여하는 조합형태의 포트묘 양묘장 설립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포트묘 양산체계를 위한 농림부 등 정부당국과의 협의·지원요청도 필요할 것이다.

#### □조경수 품질보증제도 도입

신 조경설계기준에서는 조경 식물 소재의 정확성을 요구하고 있고, 설계, 시공 및 조경수 생산자간에 조경식물재료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과 분쟁이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조경수협회에서 설계도상의 식물

재료와 공급수목의 종과 품질이 일치한다는 품질보증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조경수 정보 및 유통의 현대화

식재 설계가들은 조경 식물 소재 파악과 품질확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식물소재확인이 어려움에 따라 몇몇

수종에 의존하는 식재설계를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조경수협회가 회원사의 정확한 수목명(학명, 품종명), 규격, 수량, 가격, 식물사진 등을 전산정보화하여 조경식물유통체계를 현대화함으로써 회원사의 이익 증대와 조경분야의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조경수**

